



덴마크 국외연수

10. 7. ~ 10. 15. / 6박 9일

- 선진 교육정책 벤치마킹을 위한 2018년도 교육안전위원회 -

공 무 국 외 활 동 결 과 보 고 서

2018. 11.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 목 차 ||

I . 연수개요	1
II . 방문국 정보	3
III . 연수 내용	14
① 스톡홀름스게이브 유치원	14
② 에프터스콜레 연합회	18
③ 덴마크 교육부	21
④ 로스킬데 10학년교실	26
⑤ 바흐네호이 에프터스콜레	31
⑥ 외레스타드 초등학교	35
⑦ Valby 유스센터 및 방과후초등학교	40
IV . 기타 문화체험 및 견학 사진	44
V . 연수후기	46

공 무 국 외 활 동 결 과 보 고

I 연 수 개 요

- ☐ 기 간 : 2018. 10. 7.(일) ~ 10. 15.(월) / 6박 9일
- ☐ 연 수 팀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8명(의원 5명, 공무원 3명)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및 시청 공무원 8명
- ☐ 연 수 국 : 덴 마 크
- ☐ 목 적
 - 선진 북유럽 국가의 교육기관과 교육부 방문을 통해 다양한 교육 정책 및 제도를 체험하고 벤치마킹하여
 - 우리 세종시에 적합한 미래지향적 교육정책과 발전방향을 도모하기 위함
- ☐ 보고서 작성자 :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위원장 상병헌
- ☐ 연수 참가자 명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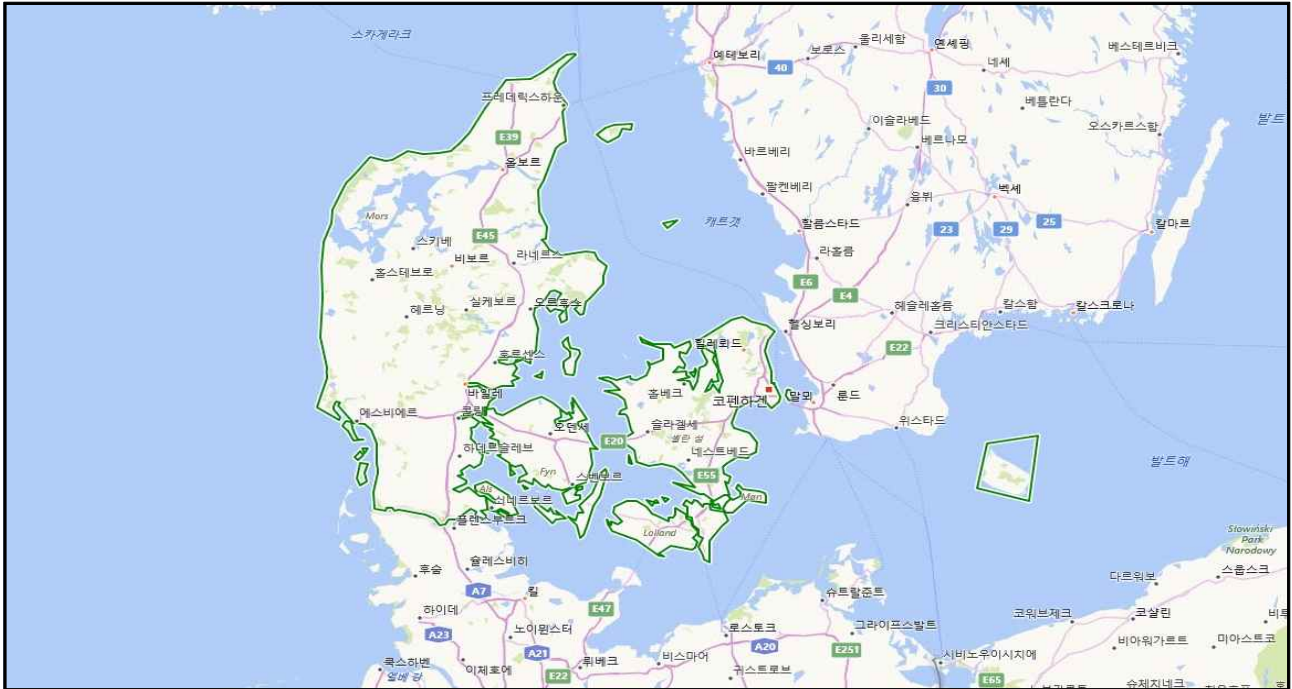
소 속	직 위	성 명	비 고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위원장	상병헌	
	위 원	윤형권, 박용희, 손현옥, 임채성	
의회사무처	주무관	김성문, 이현진, 김승환	
세종시교육청	과 장	서한택, 신명희	
	사무관·장학사 / 주무관	이재택, 김창길, 도승환 / 사대제, 김현정	
세종시청	과 장	이칠복	

□ 주요일정

일자	출발지	도착지	방문기관	업무수행내용	비고
10.7. (일)	인천	이스탄불	-	✈ 인천출발(23:55) → 이스탄불도착(10.8. 05:05) → 코펜하겐도착(09:45)	터키항공 (TK091) (TK1783)
10.8 (월)	이스탄불	코펜하겐	덴마크 한인회	- 덴마크 사회·교육문화의 이해	차량 이동
10.9. (화)	코펜하겐	코펜하겐	스톡홀름 스게이브 숲유치원	- ‘혁신 유치원 교육’ 탐방을 통한 덴마크 숲유치원의 현황과 교육목표 이해	차량 이동
			주덴마크 대사관	- 주덴마크 대사관 ‘최재철 대사’와의 만남 * 덴마크 역사와 문화의 이해 강의	
10.10. (수)	코펜하겐	코펜하겐	에프터스콜레 연합회	- 에프터스콜레 제도와 운영방식에 대한 강의	도보 이동
			덴마크교육부 방과후학교 부서	- 코펜하겐 시 방과후학교 운영현황 강의	
10.11. (목)	코펜하겐	로스킬레	로스킬데 10학년학교	- 진로를 정하는 10학년 제도에 대한 이해와 현장 견학	차량 이동
			바흐네호이 에프터스콜레	- 에프터스콜레 교육제도 이해 및 교육시설 견학	
10.12. (금)	코펜하겐	코펜하겐	외레스타드 초등학교	- 초등학교 교육제도 이해 및 학습현황·수업참관	차량 이동
			방과후유스센터	- 초등학교와 독립된 유스센터의 운영방식 견학, 학생과의 대화	
			방과후초등학교	- 초등학교 수업 후 진행되는 방과후학교의 운영방식 견학	
10.13. (토)	코펜하겐	코펜하겐	코펜하겐 시내	- 코펜하겐 시내 자전거/시설 견학	차량 이동
			시민참여형 왕립도서관	- 시민들이 모이는 도서관의 건축 철학 이해	
10.14. (일)	코펜하겐	이스탄불	-	✈ 코펜하겐출발(18:40) → 이스탄불도착(22:50)	터키항공 (TK1786)
10.15. (월)	이스탄불	인천(세종)	-	✈ 이스탄불출발(01:15) → 인천도착(16:55) → 세종시도착(20:30)	터키항공 (TK0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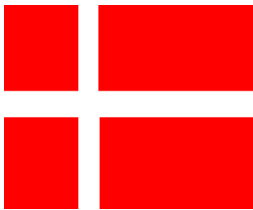
II

방문국 정보



□ 덴마크(DENMARK)

덴마크는 작은 나라라고 할 수 있지만, 자연만큼은
풍요롭고 오랜 역사를 가진 나라이다



안데르센과 낙농의 나라로 알려진 덴마크는 약 405개에
달하는 섬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대서양 북부에 위치한
세계 최대의 섬 그린란드와 영국 북쪽의 페로 제도로
이루어져 있다

국민 558만명 중 약 5분의 4가 도시에 집중되어 있다. 바이킹의 후예인
덴마크인들은 오늘날 낙농과 공업 디자인등으로 부를 축적하여 풍요
로운 생활을 구가하고 있으며 국민들에게 평등의식을 심어주어 계급의
차이가 적은 평등·자유·복지의 사회를 이룩하게 만들었다

덴마크는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왕국의 유물들이 산재해 있으며 바로
이런 것들이 이 나라의 역사를 말해주고 있다

수 도	코펜하겐(Copenhagen, 약 58만명)
인 구	약 575만명
면 적	43,094 km ² (남한의 1.5배), 자치령 그로란트 및 페로제도 제외
주요도시	올북(Aalborg), 오후스(Arhus), 오덴세(Odense)
주요민족	북게르만계의 데인족(Danes)
주요언어	게르만계의 덴마크어(국민대다수 영어 구사 가능)
종 교	루터복음교(국교, 88%), 카톨릭, 침례교, 유대교
정치형태	입헌군주제/원수(여왕)
통 화	1크로네(DKK) = 174.38원



○ 지리적 측면

총 면적은 43,094km²로 동쪽은 외레순 해협을 사이에 두고 있으며 북쪽은 노르웨이, 유틀란트 반도의 남부는 독일과 접하고 있다. 유럽 대륙의 중북부에 위치해 있는 덴마크는 유틀란트 반도와 핀섬, 셀란섬, 보른 홀름섬 등의 주요 3개의 섬을 주축으로 이루어져 있다. 특히 북유럽에 위치해 있으면서 유럽본토와 연결되어 있는 유일한 스칸디나비아 국가이다. 멕시코만류의 영향으로 온화하나 연중 바람이 많고 겨울에는 기후 변화가 심하다

○ 사회, 문화적 측면

덴마크의 인구는 약 575만명으로 덴마크어가 공용어이며, 타 스칸디나비아 국가의 언어와 영어가 통용된다. 주요 종교는 프로테스탄트로 덴마크인의 생활전반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낙농의 나라로 알려진 것과는 달리 현재 낙농이 덴마크의 경제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7%로 아주 미비한 편이며, 제약, 선박, 공업 디자인 부문이 주목을 받고 있다. 행복지수는 세계 1위이며 실직 후 2년간 생활비 보장 및 전국민 주치의가 있고 대학교까지 학비가 무료이며 대학생 월 생활비로 120만원을 지급한다. 부유하지만 환경을 위해 거의 자전거를 교통수단으로 이용한다. 물가가 높으며 연 휴가가 4주이며 1일 8시간 근무한다

○ 교육제도

1. 덴마크의 의무교육

덴마크의 교육제도는 의무취학이 아닌 의무교육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덴마크의 부모들은 지역공립학교 또는 다양한 형태의 자유학교들이나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립학교들 중 하나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덴마크의 자유학교는 우리나라의 대안학교와 비슷한 목적으로 설립된 프리스콜레(자유기초학교), 에프터스콜레(자유중등학교), 폴케호이스콜레(평민대학)와 초등과 중학교과정을 포함하는 프리스쿨이 있다. 덴마크의 교육제도는 다양성을 강조한다. 다양성과 풍요로움과 강함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란 사실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덴마크의 의무교육은 1830년부터 실시되었는데, 현재의 의무교육 연한은 7세에서 15세에 이르는 9년간이다. 의무교육을 마친 뒤 3년제 일반고등학교 또는 2~3년제 직업고등학교로 진학할 수 있는데, 중학교 졸업생 중 약 50%가 일반고등학교에 진학한다. 일반고등학교에 진학한 자는 과정에 따라 2년 혹은 3년을 마친 뒤 졸업시험을 치러 시험에 합격하면 대학입학자격을 얻게 되는데, 대학 진학자의 수는 같은 연령의 청년인구의 약 8%이고 고등교육 이수자는 총 인구의 40% 정도에 해당된다. 덴마크에는 1479년 창립된 코펜하겐대학교, 1928년 창립된 오르후스대학교, 1964년 창립된 오텐세대학교 3개 종합대학(4년제)이 있고, 그 밖에 여러 단과대학이 있다. 공립학교의 수업료는 모두 무료이고, 위의 3개 종합대학도 국립이어서 수업료가 면제된다

2. 덴마크의 사립학교

덴마크의 학교는 한국과 같이 공립학교와 자유(사립)학교(대안학교)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공립학교이든 사립학교이든 국가의 재정지원을 법적으로 보장받고 있고 서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 덴마크의 사립학교의 하나인 국민고등학교는 1844년 그룬트비의 제창에 의해 창설된 이것은 성인교육 제도로 초창기에는 농업근대화·농업기술 등에 관한 강좌가 대부분이었으나, 현재는 종교·문학·철학 등의 인문학

분야와 음악·미술·문예 등 예술분야의 강좌도 개설한다. 강좌는 보통 36주 이내로 세미나 또는 그룹 활동의 방식으로 진행된다. 제2차 세계대전 후에는 모든 사회계층의 사람들이 참가하고, 또 약 10% 정도의 외국인도 참가한다. 현재 약 80여개의 국민고등학교가 있는데 모두 사립이지만 국가로부터 원조를 받고 있으며, 연간 수강생은 약 8,500여 명이다. 덴마크는 8월에 학기가 시작하여 6월에 마친다. 봄, 가을 추수감사절과 크리스마스에 휴가를 가진다

3. 덴마크의 대안교육

가. 덴마크 프리스콜레

◇ 덴마크 프리스콜레의 주요 교육사상

- 학교는 아이가 사는 가정의 연장이다.
- 학교는 오직 아이를 위해 존재한다.(다양한 욕구와 능력발현)
- 손은 마음의 자궁이다. - 신체활동=뇌발달
- 배우는 법을 배운다. - 능동적 호기심
- 구술언어(살아있는말) - 스토리텔링 - 아침모임
- 종교와 기독교적 가치를 근간으로 한다. - 그룬투비와 쿨의 영향
- 친교와 자유 - 친밀감, 개인의 다양성
- 교육학적 자유 - 자신의 길을 찾고자 하는 내부의 움직임
- 민주적 전통 - 각자의 역할을 담당(경청하는 태도와 소수자의 포용)

◇ 프리스콜레의 구조

모든 프리스콜레는 비영리 기관인데, 이는 한 개인이 학교를 소유할 수 없으며, 학교가 사적 이익을 위해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잉여금이 생길 경우 학교의 회계장부에 남겨두어야 한다. 모든 학교는 학교의 모든 활동에 대해 최고의 권위기관으로서의 학교 운영위원회를 가지고 있어 한다. 덴마크의 프리스콜레는 학교의 가장 상위기관인 이사회를 가지고 있으며 이사회에서 학교운영위원회가

구성되며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원 중 적어도 두 사람 이상은 학교에 보내고 있는 학부모가 되어야 하며 학부모들이 학교와 관련된 일에 대한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학부모들은 학교의 일에 매우 적극적으로 동참하며 학생들이 최대한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각자의 역할에서 노력을 한다

◇ 프리스콜레의 교육과정

프리스콜레는 공립학교의 교육과정을 따를 필요가 없다. 프리스콜레는 모든 과목에 있어서 자신들만의 성취기준을 설정할 수가 있고 교육부에서 요구하는 성취기준을 따를 수 도 있지만 어떤 것을 선택하든 그것을 공개해야하며 법적으로는 학교 교육이 학생의 개인적인 발달을 보장해주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고 자유과 민주주의 그리고 평등의 기본권을 가지고 덴마크 사회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학생을 준비시켜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 프리스콜레의 운영의 결과

프리스콜레의 목표는 학교에서 성장하는 어린이들이 개인적으로 또 사회의 일원으로서 가능한 충분하게 행복하게 성장하도록 돕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프리스콜레의 운영의 결과에 대해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 좋은 교육은 수량화하기 매우 어렵기 때문에 덴마크 프리스콜레의 결과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덴마크에서는 프리스콜레와 공립학교가 공존하면서 다양한 교육의 환경을 제공하고 자유과 책임이라는 원칙하에 많은 재료를 이용한 교육의 성공을 추구하고 있다

나. 덴마크 에프터스콜레

덴마크의 에프터스콜레는 덴마크 특유의 기숙사 형태의 학교이다. 14~18세 연령의 학생들이 고등학교 진학 이전에 1년 또는 2년에 걸쳐 중학교의 마지막 과정을 이수할 수 있는 기숙학교이다. 덴마크의 에프터스콜레는 청소년을 성인으로 준비시키는 과정이며 덴마크에만 유일하게 있는 기숙학교이다. 중학교를 졸업한 학생이 고등학교 과정을 시작

하기 전에 중학교교육의 1~2년을 보내기 위해 선택하는 곳으로 일반 교육과 민주시민교육 그리고 공동체의 화합에 중요한 의미를 부여한다.

◇ 학교 및 학생 수

덴마크의 10대들 중 약 25%가 에프터스콜레에 참여 참여한다. 지난 25년 동안 학생 수가 꾸준히 증가하였고 매년 245개의 에프터스콜레에서 사회의 여러 계층으로부터 2만 8천여 명의 학생들을 모집한다. 에프터스콜레의 규모는 75~500여명의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을 정도로 다양하지만 평균적으로 100~120명의 학생들이 다니고 있다. 대다수의 학교는 지방이나 지방도심부 근처에 위치하고 있고 소수는 대도시에 위치하고 있다. 일반 필수과목 이외에 축구, 무용, 공연, 승마, 청소년 창업 그리고 시민의식과 같은 과정을 제공하며 체조, 음악, 국제협력과 같은 특별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도 있다

◇ 역사

에프터스콜레는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덴마크의 시인이자 목회자인 그룬트비의 사상을 바탕으로 크리스텐 콜(Kristen Kold, 1816~1870)에 의해 1851년에 설립되었다. 그룬트비가 ‘평민을 위한 학교’ 이념으로 성인 대상 학교를 건립한 반면 콜은 청소년기에 진입하는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학교들을 건립하였다. 콜은 “18세가 되면 여자친구들이 생기고 담배도 피운다.” 라고 지적하였는데 150년이 지난 오늘날 에프터스콜레는 여전히 14~17세 학생들만을 위해 자리하고 있다

◇ 인생 계몽

그룬트비의 교육이념은 정식 직업 훈련보다는 인생을 위한 계몽의 필요성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그룬트비가 중요시 한 것은 학생들이 자아를 발견하고 세상에서 자신의 위치를 찾는 것이다. <살아 있는 말>은 여러 저서들에서 찾아 볼 수 있는데 교사들은 이를 바탕으로 인생, 역사, 시 신화에 대해 전달하며 학생들에게 영감을 준다

◇ 교육과정 및 시험

에프터스콜레는 일반적으로 공립학교들과 동등한 국가 교육과정과 시험을 제공한다. 반면 많은 에프터스콜레는 이외에 추가로 스포츠, 음악, 연극 등 특수 과목들에 중점을 두고 있다. 자신의 관심분야를 다른 학생들 뿐 아니라 교사들과 공유할 수 있다. 이 같은 관심사는 강력한 협동심과 에프터스콜레의 가치를 상승시킨다

◇ 민주주의 시민정신(실질적인 참여)

에프터스콜레의 핵심요소는 민주주의 시민정신이다. 모든 학생들은 개인 및 공동생활을 위하여 실질적인 참여를 해야 한다. 자신의 숙소를 정리 청소하고, 식사준비 및 설거지 등을 같이 한다. 이를 통하여 책임감이 형성되며 공동체 생활에 기여하는 참뜻을 깨닫게 된다

◇ 교사-학생관계

에프터스콜레의 중요한 특성 중 하나는 교사-학생 관계이다. 교사들은 수업 및 학업관련 시간 외에 감독, 관리의 책임이 있다. 이것은 교사들과 학생들이 아침에 기상할 때부터 취침시간까지 하루 종일 함께 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교사들과 학생들 사이에 친밀하고 개인적이며 비형식적인 관계가 형성된다. 이것이 에프터스콜레의 특별한 교육과 결합하여 학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학생들을 강화시켜줄 뿐만 아니라 더욱 독립적이고 성숙하게 만들어주는 특별함이다

◇ 결과 및 영향

대다수의 덴마크 사람들은 에프터스콜레에서 보낸 1년은 일반 학교 생활 일 년에 해당하는 기간 이상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많은 사람들은 인생 중 최고의 일 년이라고 기억한다. 학업 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젊은이들이 성인세대를 준비하기 위한 ‘자야발견의 여행’ 이라고 할 수 있다. ‘에프터스콜레의 1년 생활은 인생의 7년에 해당한다’ 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 덴마크의 폴케호이스콜레

◇ 삶을 위한 학교(School for life)로 대표되는 덴마크의 폴케호이스콜레는 덴마크의 목사, 시인, 작가, 사상가, 역사가, 교육가이자 정치가였던 그룬트비로부터 시작되었다. 덴마크는 1783년에 획기적인 정치개혁을 단행하였는데 그 개혁을 통해서도 덴마크의 대부분의 농민들은 지식을 획득할 수단이 부족해서 정치적 결정에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가 없었고 독일과 프러시아 의해 영토를 잃고 자신감을 상실하면서 국가적 정체성까지 흔들리던 상황이었다. 이때 그룬트비는 특히 가난하고 교육받지 못한 이런 농부들의 민주적 요구에 부응하며, 개인과 국가적 역사인식을 통한 그들 고유의 정신을 발전시킬 수 있는 독특한 학교인 폴케호이스콜레를 구상하게 되고 러폴(1844년 Chr. Flor)에 의해서 최초의 학교가 설립하게 된다. 폴케호이스콜레는(평민대학)은 18세 이상의 모든 사람들을 위한 학교이다. 나이제한도 없으며 특별한 자격요건도 없다. 일반적으로 폴케호이스콜레의 교육은 4~6개월 동안 한 한기 단위로 제공되며, 많은 덴마크의 젊은이들이 대학교육을 받기 전 자신의 진로에 대한 명료화, 성장, 재충전을 목적으로 하는 갭이어 활동의 일환으로 폴케호이스콜레에 등록한다. 폴케호이스콜레는 교육제도를 보충하는 학교이다.(대안교육 아님) 폴케호이스콜레는 고정된 교육과정이 없는 자유로운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으며 학생과 교사들이 원하고 흥미로워하는 것들을 가지고 수업을 함으로서 더 많은 동기를 가지고 수업에 참석할 수 있다. 모든 학생은 일주일에 최소 28시간 수업에 참여하며 모든 교육과정은 대화를 기반으로 이루어진다. 자신이 선택한 교육으로 점수나 등급, 시험은 전혀 없으며 참가하는 모든 학생들이 무언가를 배우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있다. 폴케호이스콜레는 ‘교육은 삶을 위한 것이다’ 라는 전제로부터 출발한다. 폴케호이스콜레는 농부들, 무역종사자들 그리고 항해사와 사업가들이었던 대부분의 학생들에게 삶의 의미를 재구성하고 목적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교육을 제시하였다. 학생들은 특히 ‘살아있는 말’, 스토리텔링, 시와 노래

들로 그들의 문화적 유산과 정체성들을 학습해가도록 안내되었다. IPC의 교사인 클라우스(Claus)에 의하면 폴케호이스콜레의 핵심 개념은 ‘삶을 위한 계몽’ 이라고 한다. ‘빛’ 은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선물로서 한두 명의 학자를 위한 것이 아닌 바쁜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농민을 포함한 모두를 위한 것이며 ‘삶’ 은 인간이라면 권리로써 누리는 삶, 그리고 영적성장을 위한 삶을 의미한다고 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삶을 위한 계몽은 당연히 ‘살아있는 말’ 을 토대로 구축될 수밖에 없다. 말은 그 자체로 살아있으며 동시에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하는 도구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말은 내 자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부를 살아있도록 만들며 변화시킨다. 폴케호이스콜레에서 살아있는 대화를 중요시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 폴케호이스콜레의 특징

살아있는 말의 공유를 통한 배움-폴케호이스콜레에서 살아있는 대화는 매우 중요시된다. 기숙학교이기 때문에 삶을 함께 영위해 나가면서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이 매우 각별하다. 또한 단순히 책을 통해 배우는 지식보다도 노래, 대화, 스토리텔링 등 살아 숨쉬는 언어의 사용을 훨씬 중요시 한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 총회시간마다 그룬트비가 작곡한 찬송가나 팝송을 함께 부르면서 마음을 모으는 시간을 갖는다

◇ 교사와 학생간의 수평관계

교장이라고 해서 특별한 권한을 갖는 것은 아니다. 교사라고 해서 학생을 무조건 가르치려고 하지도 않는다. IPC의 교장은 한 반의 담임교사인(교사 한 명당 10여명의 학생으로 구성)로서 설거지, 청소 등 학생들의 의무에 동참한다. 학생은 언제든지 교사에게 제언하거나 토론할 수 있으며, 수업 중에도 학생들의 다양한 의견과 행동은 항상 존중된다. 현재 가을학기에 참여 중인 IPC학생들의 나이도 17.5세부터 55세까지 다양하기 때문에 학생들 간에 그리고 교사와 학생들 간에도 항상 배려를 기본 전제로 한다

◇ No Exams-폴케호이스콜레는 시험이 없다. 만 17.5세 이상이어야만 입학이 가능하다는 것 외엔 특별한 입학자격도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시험이 없다고 해서 과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IPC에 속해있는 수업의 예를 들면, 매 시간마다 학생들은 순번을 정하여 할아버지로부터 자신에 이르기 까지 가족의 이주 경험을 나누는 것으로 시작한다. 또한 이주민 및 난민 대책 등 자신의 관심 주제에 관해 연구하고 발표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렇게 함으로써 다른 학생들도 사람들이 삶의 터전을 옮기는 이유가 무엇인지 자연스럽게 그리고 실제적으로 배우게 되며 자신의 경험에 빗대어이주민 문제와 난민문제에 관해 깊이 있게 고찰해보는 기회를 갖는다. 어떤 학생들은 매우 예상치 못한 발표를 준비해 와서 개인적으로 많이 놀라기도 하였다. 이렇듯 시험이 없다고 해서 배움이 없는 것이 아니다. 수업 자체가 교사의 경험과 학생들의 경험이 어우러 지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살아있는 경험들의 공유를 통해 세상을 더욱 더 구체적으로 돌아보도록 이끈다

◇ 특징

- 폴케호이스콜레의 젊은이들은 직업과 삶 전반에서 자신의 선택에 대해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 선택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운다.
- 점수와 시험이 없는 교육 환경이 학생들을 편안하고 안전되게 만들어 준다
- 자신의 결정을 내리고, 계획하고 실행하는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자신의 능력과 스스로에 대해 더 많은 자신감을 얻는다
- 학생들은 동료학생들과 교사들로부터 영감을 받고, 자기 자신과 자신의 능력을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보게 된다
- 학생들은 배움의 욕구와 계속해서 공부하고자 하는 동기를 재발견 한다
- 다양한 국적과 사회적 배경, 신념을 가진 사람들과 작은 사회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것은 공동체의 삶과 일상의 민주주의를 직접 경험하게 해준다

◇ 폴케호이스콜레의 종류

- 기독교 영성 학교 - 이 학교에서는 성경을 공부하면서 인간의 삶에 대한 영적 접근방법을 가르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일반적인 그룬트비 학교 - 전통적인 포크하이스쿨로서 하나 혹은 다양한 분야를 선택하여 공부하고 교육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스포츠 학교 - 이 학교들은 체육교육에 특화된 학교들이다. 코스의 절반은 스포츠에 집중하고, 나머지 절반은 다양하게 개설된 과목을 선택하여 학습한다
- 라이프스타일 학교 - 이 학교는 특별히 다이어트와 운동 등 개인의 자기 계발에 목표를 둔다. 그러나 이 학교도 일반적인 교육을 포함하며, 다양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
- 노인학교 - 폴케호이스콜레법에 따라 몇 개의 학교는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단기과정을 제공하며 대개 연중 내내 개설된다
- 전문학교 - 이 학교들은 특화된 하나의 훈련(음악, 디자인 등)에 집중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제공하지만 폴케호이스콜레법에 의해 그 과목을 하루 내내 진행할 수는 없고 일반적으로 다른 선택 과목들도 함께 수강하게 된다.
- 청소년학교 - 16.5세에서 19세 미만의 청소년들을 위한 학교이며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학생 혹은 대학을 휴학한 청소년들에게 자신의 삶의 목표를 정립하고 어떤 일을 하며 살아가야 할 지 탐색할 기회를 제공한다

III**연수 내용****1 스톡홀름스게이브 숲유치원****방문개요**

- 일 시 : 2018. 10. 9.(화), 10:00~12:00(2시간)
- 장 소 : Klampenborgvej 135, 2800 Kongens Lyngby
- 면담자 : 숲유치원 원장(Søren Emil Markeprand)
- 방문내용 : 덴마크 숲 유치원의 현황과 교육목표 이해

1. 일반 현황**(숲유치원 이름의 유래)**

- 스톡홀름스게이브(Stockholmsgave)는 '스톡홀름의 선물'이란 뜻으로, 과거 2차대전이 끝난 후 집이 없는 코펜하겐 아이들을 위해 스웨덴의 수도 스톡홀름시가 이곳에 보호시설을 지어준 것으로 유래

(위치)

- 덴마크 코펜하겐 북부도시 링비(Ringby)

(면적)

- 7,000㎡(2개의 다른 유치원과 부지 공유)

(인원)

- 숲유치원의 원생은 모두 70명으로 23~24명씩을 한 반으로 하는데, 한반에 3-4명의 교사가 배정

(주요 특징)

- 매일 아이들을 위한 특정한 수업 프로그램이 없고, 주입식 교육 보다는 자유로운 몸 놀이를 통한 사고가 더 좋은 교육이라는 교육 철학으로 운영

- 스톡홀름스게이브 숲유치원은 아이들이 겨울 추운날씨에도 불구하고 미래 비치된 방한복을 입고 진흙에서 뒹굴기도 하고, 높은 나무를 타기도 하고, 칼을 가지고 가지치기를 하기도 한다. 하지만 교사는 그만하라고 하는 대신 도구를 다루는 법, 환경에 적응해서 안전하게 노는 법을 가르친다. 아이들은 칼을 다룰 때 ‘무기’가 아닌 ‘도구’라고 배운다. 넘어지고, 베이고 다치면서 위험한 것과 위험하지 않은 것에 대해 배우고 이것은 큰 위험을 미리 피할 수 있는 교육이 된다고 믿는다. 아이가 나무에 오르려고 하면 잠재적인 위험에 대해 미리 주의를 주고 나무에 오르게 하며 설령 나무에서 떨어지더라도 꾸중은 하지 않는다. 교사들은 아이들을 위해 교구 만들기, 수업 준비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않으며 매일 아이들을 위한 특정한 수업 프로그램도 없으며, 유치원을 다니는 연령의 아이들에게는 주입식 교육보다도 자유로운 몸놀이를 통한 사고가 더 좋은 교육이라는 믿음을 교사와 학부모 모두 공감하고 있음

2. 숲유치원 하루 일과

(오전 일과)

- 시내의 한 장소(컬렉션 플레이스)에 오전 8시 30분에 집합하여 버스로 등원
- 9시에 도착하여 인원체크 한 후 15-30분간 오늘의 경험과 느낌, 하고 싶은 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간식을 먹음
- 10시부터 방한복으로 갈아 입고, 그룹별 숲 활동 및 자유 놀이

(점심 식사)

- 11시 30분 담당자가 음식을 준비하고 아이들 가운데 도우미 3명을 뽑아 자원 봉사를 하며, 각자 자기 접시를 가지고 나와서 유기농 음식 식사

(오후 일과)

- 식사 종료 후 3살 미만은 낮잠을 자고, 나머지는 밖에서 야외활동
- 2시에서 15분간 간식을 먹고 3시에 옷을 갈아입고 하원 준비

질의 및 답변

[물음 1] 숲유치원에서 문자 교육을 하는지, 다른 유치원은 다른지?

(답 변) 숲유치원에서는 앞서서 배우는 것이 없고, 이는 다른 유치원도 동일함. 아이들이 조기 교육을 즐거워 하지 않을 뿐더러, 우리 숲유치원은 어느 단계에서 지식을 배우는 것이 아닌 몸에 자극을 주면서 직접 경험하며 사회성, 창조성을 종합적으로 습득하여 준비가 된 어린이를 만드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음

[물음 2] 아이들이 야외활동하다가 다칠수 있지 않은지?

(답 변) 숲유치원에서 칼이나 망치를 도구로 하는 수업도 하지만 한 번도 큰 사고가 없었고, 손을 베는 정도의 부상은 있지만 그런 경험을 통해서도 아이는 배우는 계기가 된다고 봄

[물음 3] 선생님들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답 변) 유치원에는 자칫 여자 교사가 다수를 차지할 가능성이 높는데 아이들의 다양한 경험을 위해 성별, 나이 별로 다양한 교사로 구성되어 있음

[물음 4] 아이들의 하루 일과는?

(답 변) 야외에서 오전과 오후, 각각 그룹 활동과 자유 시간으로 이루어짐. 그룹 활동은 페다고라 부르는 교사 2명, 보조교사 1명과 함께 진행됨. 음악, 체육(몸놀이), 음식 만들기 같은 가르치는 교과목부터 교사 개인별 성격에 이르기까지 '다양성'을 굉장히 중요시함

[물음 5] 아이들을 감시하는 CCTV는 없는지?

(답 변) CCTV는 없음. 숲유치원에서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는 감시 받지 않고, 통제 받지 않고, 본인이 스스로 경험하는 것으로

아이가 숲에 들어가 1시간 동안 혼자 있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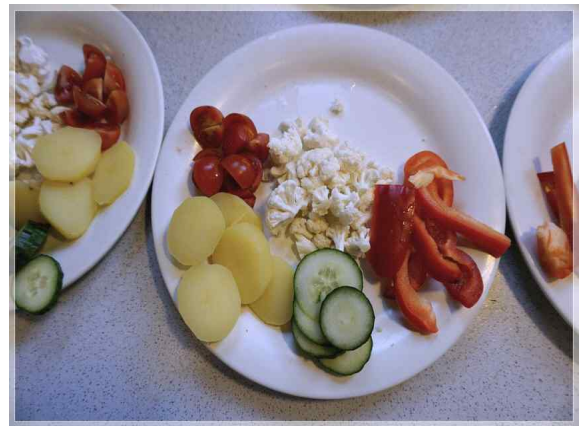
[자연친화적인 아이들 놀이기구]



[숲유치원 야외 시설에 대한 안내]



[동·식물을 활용한 학습 교구]



[직접 재배한 유기농 식단]



[세종교육청 및 시청 홍보자료 전달]



[숲유치원 전경을 배경으로 한 단체사진]

2 에프터스콜레 연합회(Amager Ressourcecenter)

방문개요

- 일 시 : 2018. 10. 10.(수), 10:00~12:00(2시간)
- 장 소 : Farvergade 27, 1463 KØbenhavn K
- 면담자 : 수네 코브에르(연합회 사무총장)
- 방문내용 : 에프터스콜레 제도와 운영방식에 대한 이해

1. 에프터스콜레 일반현황

(에프터스콜레란)

- 에프터스콜레는 덴마크 특유의 기숙사 형태의 학교임. 14-17세 연령의 학생들이 고등학교 진학 이전에 1년 또는 2년에 걸쳐 중학교의 마지막 과정을 이수할 수 있음

(역사)

- 최초의 에프터스콜레는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덴마크의 시인이자 목회자인 그룬트비(N.F.S. Grundtvig, 1783-1872)의 사상을 바탕으로 크리스텐 켈(Kristen Kold, 1816-1870)에 의해 1851년 설립되었음. 그룬트비가 ‘평민을 위한 학교’ 이념으로 성인 대상 학교들을 건립한 반면 켈은 청소년기에 진입하는 젊은이들 대상으로 학교들을 건립함

(학교 및 학생 수)

- 덴마크 10대들 중 약 20%가 에프터스콜레에 참여함. 지난 25년 동안 학생 수가 꾸준히 증가하였고, 현재 250여개 학교들이 사회 여러 계층으로부터 2만 8천여명의 학생들을 모집함. 에프터스콜레의 규모는 35-500명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을 정도로 다양하지만 평균적으로 100-120명 참여함. 대다수의 학교는 지방이나 지방도심부 근처에 위치하고 있고 소수는 대도시에 위치함

(교육과정 및 시험)

- 에프터스쿨레는 일반적으로 공립학교들과 동등한 국가 교육 과정과 시험을 제공함. 반면 많은 에프터스쿨레는 이외에 추가로 스포츠, 음악, 연극 등 특수 과목들에 중점을 두고 있어 자신의 관심분야를 다른 학생들뿐 아니라 교사들과 공유할 수 있음. 이같은 공통 관심사는 강력과 협동심과 에프터스쿨레의 가치를 상승시킴

(교사-학생 관계)

- 에프터스쿨레의 중요한 특성 중 하나는 교사-학생 관계임. 교사들은 수업 및 학업 관련 시간 외에 감독, 관리의 책임이 있음. 이것은 교사들과 학생들이 아침에 기상할 때부터 취침시간까지 하루 종일 함께한다는 의미로 교사들과 학생들 사이에 친밀하고 개인적이며 비형식적인 관계가 형성됨

2. 에프터스쿨레 협회 주요업무

- 코펜하겐에 사무국을 두고 있는 협회는 학교의 교육 개발 및 마케팅, 학교 관리, 법률, 경제에 대한 조언 등 다양한 업무와 교육부에서 들어오는 보조금을 관리
- 학교 협회의 회장은 3년 임기로 선출되며 여덟 명으로 구성된 이사회에 의해 관리
- 연합회는 다른 협회, 미디어, 정부 부처 등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
- 에프터스쿨레 직원들을 훈련하고, 새로운 교육법을 발굴하기도 하며, 이러한 일은 교육부에서 연간보조금을 받아 시행

질의 및 답변

[물음 1] 학습 발달이 느린 학생이 에프터스쿨레에 많이 지원하는지?

(답 변) 처음에는 도시지역보다 지방에서 그리고 학습 발달이 느린 학생들이 많이 지원하였음. 지금은 에프터스쿨레를 직접 경험한 지인

들의 추천으로 많이 가는 상황임

[물음 2] 에프터스쿨레 등록이 어려운지?

(답 변) 에프터스쿨레를 등록하기 위해서 건물이 있어야 하고, 학생들의 모집이 쉽지 않음

[물음 3] 에프터스쿨레를 평가하는 기관이 있는지?

(답 변) 정부에서 수시로 방문하여 점검하며, 간단한 기준을 지킬 경우 정부의 보조를 받을 수 있음

[물음 4] 학생들이 지켜야할 규제는 어떻게 만드는지? 제제는?

(답 변) 보수적인 학교에서는 교장이 규제를 직접 만들고, 규칙을 어길시 자퇴 등 다양한 제재를 가함

[물음 5] 학비 지원은?

(답 변) 학비는 에프터스쿨레마다 다르며 통상적으로 절반정도를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에서 지원함



[에프터스쿨레 제도에 대한 설명 청취]



[연합회 사무총장과 함께 기념사진]

3 덴마크 교육부(Danish Ministry of Education)

방문개요

- 일 시 : 2018. 10. 10.(수), 13:00~17:00(4시간)
- 장 소 : 코펜하겐 HØjskole(성인학교)
- 면담자 : 토혼 쉬센, 쉬네 / 덴마크 교육부 국제협력부 담당자
- 방문내용 : 덴마크 교육부 및 교육시스템, 방과후학교의 활동에 대한 내용 청취

1. 일반현황

(교육관련 기관) - 역할분담 및 자율성

- 교육부(Ministry of Education)
 - 교육부의 역할은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교육 목표를 수립하고 교육의 질적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연구기능을 담당함
 - 세부적으로는 교육관계 법령의 제·개정, 정부 교부금(Grant) 배부, 교과과정(과목) 채택등을 담당함
- 지방자치기관(Municipality)
 - 전국 275개의 지방자치 기관은 지역 내 교육문제에 있어 상당한 자율성이 보장되어 있으며, 국가가 설정한 교육목표, 교과과정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이행할 것인가의 실질적인 문제를 담당함
 - 초·중등 교육기관의 예산을 집행(고등교육 이상은 중앙정부가 재정 지원 등 실질적 감독권한 행사)하며 학부모, 교사, 교육전문가 등 3자 협의 위원회를 운용하여 일선 학교를 감독하고 지도함

(교육예산) - 비용이 아닌 투자

- 학생 1인당 교육비로 평가하던 덴마크는 세계에서 5번째(오스트리아, 스위스, 노르웨이, 미국 순)로 교육비 지출이 높은 교육시스템을 갖추고 있음(OECD 보고서, 2003년)
- Anders Bondo Christensen 덴마크 교사협회(Danish Teachers

Association) 회장은 “교육에 대한 지출은 비용(expense)이 아닌 투자(investment)”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강조

(최근 교육현황 및 특징)

- 뛰어난 교육 인프라를 갖고 있는 덴마크는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교육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성인 교육과 실업자 및 직장인을 위한 재교육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음
- 그러나 최근에는 막대한 교육재정 지출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한 학습능력 및 노동자의 지적 수준 저하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교육 개혁 문제가 대두되고 있음

2. 단계별 교육제도

가. 초등교육(7~16세)

- 1학년 취학 전 학교과정과 9년제 초등학교(folkeskole, 한국의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결합), 마지막 10학년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9년제 초등과정은 의무 교육임
 - 취학전 학교과정 및 10학년 과정 이행은 강제 의무교육 대상이 아닌 개인(학생 또는 학부모)의 선택 사항임
- ※ 10학년 과정은 고등학교로 진학하기 전 연결과정(bridge-building course)으로서 자신의 진로와 전공의 선택을 앞둔 학생이 덴마크어, 수학, 영어 및 다양한 선택 과목을 추가로 수강하는 과정임
- 10세(4학년)부터 영어 교육이 의무적으로 시행되고 14세(8학년)부터 제2외국어를 학습함

나. 중등교육(17~19세)

- 대학진학을 목적으로 하는 3년제 일반 중등학교(Gymnasium, 한국의 고등학교)와 2~3년제 직업학교가 있음
 - 직업학교는 3분야로 나뉘는데(농업, 사회보건, 직업교육연수 분야) 동 과정 수료 후 바로 노동시장에 진출 가능
- 대부분의 초등학교 졸업생이 중등학교에 진학하며, 중등학교 졸업

생은 전국적으로 치루어지는 시험에서 취득한 점수(척도: 0~13점)와 유관분야 사회경력(군복무, 사회봉사 등)으로 희망하는 대학에 지원 가능하며, 고등 상업기술시험에 합격할 경우도 대학진학이 가능함

다. 고등교육

- 전국에 5개의 종합대학(코펜하겐, 오후스, 남부 덴마크, 올보오, 로스킬드 University)이 있으며, 대부분 학사과정(3년) 이후 석사과정(2~3년)에 진학함
- 이밖에 왕립 미술학교(Royal Danish Academy of Fine Arts), 음악 아카데미(Academy of Music), 건축, 디자인 등 3~4년제 특수분야 대학교(college)가 다수 있음

라. 성인교육 및 재교육

- 대부분의 고등교육 기관들은 정부의 재정지원과 후원하에 직장인 또는 실업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재교육 프로그램을 시행중이며, 특정한 자격과 학위가 요구되지 않는 Open University 형태로 운영됨
 - 이러한 성인교육은 덴마크 교육제도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임
- 교육비(수업료)는 없으며, 교재비는 본인부담임
 - 만 16세부터 학생의 경우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을 수 있으나, 소액이며 부모의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
 - 만 18세부터는 정부 교육보조금(SU) 명목으로 학생 일인당 월 약 3,600크로네(600달러)가 지급되며, 동 보조금은 소득이므로 과세 대상임

질의 및 답변

[물음 1] 에프터스콜레에 30% 이하의 학생들이 진학을 하고 있는데, 에프터스콜레에서 이루어지는 삶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민주시민교육은 모든 학생들에게 필요한 내용으로 에프터스콜레에 진학하지 않는 학생들은 일반 공립학교에서는 어떻게 민주시민교육을 배우는지?

(답 변) 민주시민 양성에 대한 교육은 덴마크의 전학교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가치이며, 에프터스콜레가 가지고 있는 가치는 아이들이 스스로 선택 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을 준다는 것임

[물음 2] 교육부 에프터스콜레 담당자와 에프터스콜레연합회와의 관계는 어떠한가?

(답 변) 교육부는 감시·감사를 하는 곳이고, 에프터스콜레연합회는 로비를 하기 때문에 복잡한 관계이기는 하나, 서로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는 항상 공유할 정도로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에프터스콜레의 유지를 위해서 연합회에서는 교육부를 거치지 않고 정부측에 로비를 하기 때문에 교육부 담당자는 정부와 에프터스콜레연합회 사이에서 어떠한 로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함

[물음 3] 에프터스콜레가 공교육에 주는 부정적인 측면은 무엇인지?

(답 변) 너무나 파티를 많이 해서 학생들이 술을 마시는 행동들이 너무나 빈번하게 이루어졌음. 지금은 조금 바뀌었으나 예전에는 문제가 있는 학생들, 학습능력이 낮은 학생을 보살피는 학교였는데, 지금은 귀족학교처럼 돈 있는 사람들만 갈수 있다는 이미지가 강한 부정적인 측면이 있음

[물음 4] 우리나라는 사교육에 대한 대책으로 방과후활동을 도입하였는데, 덴마크에서도 사교육이 있는지?

(답 변) 덴마크는 사교육이 없음

[물음 5] 덴마크의 하루의 학교 교육시간이 2014년도부터 늘어났다고 하였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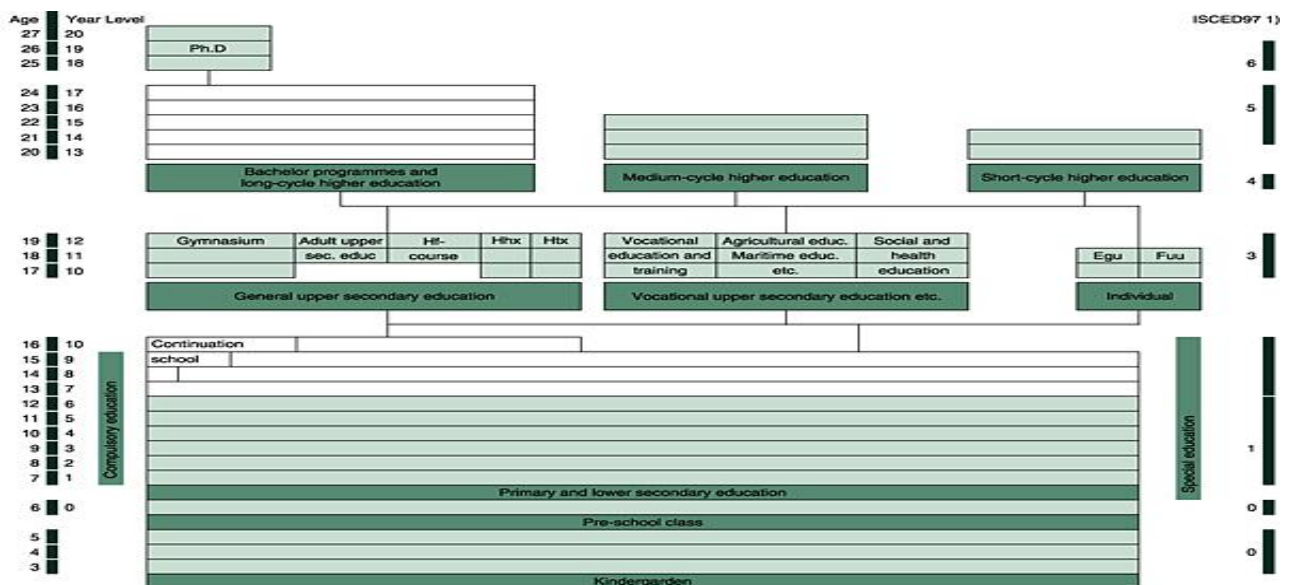
(답 변)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가장 활용할 수 있는 시간, 즉 가르치는 시간과 활동하는 시간의 확보와 잘하는 학생과 부족한 학생이 서로 도와줄 수 교육을 할 수 있는 시간 확보를 위하여 학교 교육시간이 늘어남

[물음 6] 덴마크의 피사테스트 순위가 높지 않은 이유는?

(답 변) 피사테스트는 암기한 내용을 얼마나 알고 있는 지를 평가하기 때문에, 지식을 배워서 활용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을 중시하는 덴마크의 교육의 평가에는 적절하지 않음. 그렇기 때문에 덴마크의 순위가 낮은 것이 당연하고 피사테스트 순위가 낮은 것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덴마크 교육계의 입장임

[물음 7] 독일 같은 경우 피사테스트를 반대하는데, 2014년도에 피사테스트 순위가 낮아 덴마크의 학교 수업시간이 늘어났는데. 덴마크는 피사테스트에 대해 무시하고 있는지? 아니면 어느 정도 신경을 쓰고 있는지?

(답 변) 피사테스트는 전세계 국가를 비교를 하는 테스트이기 때문에 당연히 예민할 수밖에 없고, 2014년도 교육 개혁(학교 수업시간이 늘어난 것)도 피사테스트에서 덴마크의 낮은 순위 결과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덴마크 교육계는 인간으로 살아가면서 학습 레벨도 중요하지만, 인간으로 라이프 스킬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밸런스를 잡아가는 과정들이 현재 논의 중에 있음



- 덴마크 교육시스템 -

4 로스킬데 10학년센터

방문개요

- 일 시 : 2018. 10. 11.(목), 10:00~12:00(2시간)
- 장 소 : 로스킬데 TiendeklasseCenter
- 면담자 : 투어 / 로스킬데 10학년센터 교사
- 방문내용 : 로스킬데 10학년센터 견학과 덴마크 10학년제도에 대한 내용 청취

1. 일반현황

- (센터 현황) 교사 20명이 근무하며, 로스킬데 뿐만 아니라 인근 시인 라이어에서 다니고 있는 학생 등 총 170명(만16 ~ 만17세) 재학 중에 있음
- (센터 위치) 경영학교, 직업학교, 서비스업계학교 등 여러 고등학교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어 학생들의 교육과정 운영에 적절함

2. 덴마크의 10학년제도

- (10학년제도란?) 덴마크의 초등교육(의무교육 9년)과 중등교육의 매개체가 되는 학년(1년)으로, 필수적으로 거쳐야하는 학년이 아닌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을 알아가고 미래의 진로선택을 위하여 선택적으로 거치는 학년임
- (운영형태) 보통 공립학교 속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로스킬데 10학년센터처럼 학년 운영의 효율성과 학생들의 다양한 과목 선택을 위하여 여러 공립학교의 10학년을 모아서 센터로 운영하는 형태도 있음
- (등록금) 전액 시에서 재정을 지원함으로써 무료임
- (사회적 의미) 10학년제도는 의무사항이 아닌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인생에 있어서 1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되고 무료로 운영하고 있어 일부에서는 사회적 비용이 큰 것에 대한 비판도 있으나, 한 인간의 행복한 인생을 위하여 1년 동안 자기 자신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을 경험함으로써 인생의 시행착오를 줄인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음

- (에프터스쿨레와의 차이점) 10학년제도(공립학교)와 에프터스쿨레(사립 학교)는 고등학교 진학 전에 선택적으로 다닐 수 있으며, 더 나은 인생설계를 위하여 청소년 스스로를 알아가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유사하나, 에프터스쿨레는 대부분 대도시가 아닌 전원에 위치하고 있어 기숙사 생활로 인하여 학부모의 비용부담이 있으나, 10학년 제도는 시에서 재원을 지원하고 있고 공립학교 속에 또는 센터로 운영하고 있어 기숙사 생활을 하지 않음으로 학부모의 비용부담이 없음

3. 로스킬데 10학년센터의 5가지 중요가치

- (Contemplation, 응시) 빠르게 변하는 오늘 날의 시대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학생들이 서둘러서 사회에 기여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학생들이 본인의 관심사를 정확히 알고 나중에 고등학교에 진학하거나 직장을 갖을 때 중도포기 보다는 그 당시의 자신의 관심을 정확히 알고 선택한다면 오히려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회에 더 이로운
- (Recognition, 인지) 학생들 개인의 능력 차이를 정확히 인지하여 개개인에게 맞는 수준의 학습을 시키는 것이 중요하기에, 모든 교사들이 충분한 역량을 갖추어 개개인의 꿈을 존중하고 앞으로 그것을 쫓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줌
- (Ownership, 주인의식) 10학년은 성인과 아동의 사이에 있는 나이 대이기 때문에 학생 개개인의 전담교사는 학생들이 성인에 걸맞는 책임감을 기를 수 있도록 능력을 배양하는데 도움을 주며, 이 학교 자체가 학생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주인의식을 갖도록 도움을 줌
- (Comunity, 공동체) 로스킬데 10학년 학교는 인종, 가정환경 등 학생들의 배경이 다양함. 이런 다양성이 어떤 면에서는 부정적이라고 볼 수 있으나, 다양성을 바탕으로 그 다양한 사람들 속에서 어떻게 함께 문제를 풀어나가고, 분쟁을 해결해 나아가는 건설적인 자세를 갖출 수 있다는 점에서 이 학교의 선생님들은 학교의 강점이라고 생각함

- (Development, 개발) 학생들의 개인 능력뿐만 아니라 사회성 제고도 중요함으로 학생들에게 항상 피드백을 주어 늘 본인이 어느 단계에 와있는 지를 알려줌

질의 및 답변

[물음 1] 10학년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는 어떠한가?

(답 변) 지금의 10학년 나이 대 같은 경우 어른이 되는 전 단계이기 때문에 어른으로 존중받는 것을 좋아함. 여기에 근무하는 선생님들은 학생들을 존중하면서 아이가 아닌 성인으로 보기 때문에 항상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존중하면서 대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음. 오히려 부모가 너무 개입을 많이 하게 되면 부모에게 우리가 알아서 성인 대 성인으로 해결할 테니 부모는 빠지라고 이야기함

[물음 2] 학생들이 진로 등을 선택하려면 직업에 대한 많은 견학이 필요한데, 학생들이 학교와 MOU체결한 기관(기업)을 언제든지 방문하여 다양한 직업을 경험할 수 있는지?

(답 변) 직업의 종류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작년부터 견학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운영하였음. 예를 들어, 아트디자인의 경우 건축회사와 연계되어 있어 어떠한 도안을 학생들이 그려내면 건축가들이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주고, 구경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짐

[물음 2] 10학년의 커리큘럼을 학교자체에서 확정하고 진행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외부기관 또는 어떠한 곳에서 심의를 하고 평가를 하고 진행하는 것인지?

(답 변) 덴마크의 커리큘럼 의미를 보면, 교육부에서 학습목표만 세워주면, 목표에 도달하는 방법은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구성함. 특히, 수학, 영어와 같은 필수 과목은 학습목표가 정해져 있고, 선택과목은 학습목표가 정해져 있지 않아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정함

[물음 3] 10학년 과정을 수료 후 학생들의 진학률은 어떻게 되는지?

(답 변) 10학년 과정을 수료한 학생들의 40%는 일반계고등학교로, 40%는 직업계고등학교로, 나머지 20프로가 다른 학교(프로덕션 학교*)로 진학하고 있음

* 프로덕션 학교 : 진학을 하는 데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가는 공립학교로 우리나라에는 없는 다른 개념의 학교

[물음 4] 이 학교의 학생들의 중도 탈락률은 어떻게 되는지?

(답 변) 이 학교에는 170명 정도의 학생이 6월에 학기를 시작하면 크리스마스 정도의 시기에 직업학교 등 진학 준비가 완료된 학생, 아르바이트를 하여 돈을 벌기위한 목적 그만 두는 학생 등 약 20명 정도가 학교를 그만 두며, 에프터스쿨레에 입학하였으나 부적응한 학생, 고등학교에 진학하였는데 조금 더 진로 탐색이 필요한 학생 등 중간에 입학하는 학생이 약 20명 정도 되어, 연 평균 170명의 재학생을 유지하고 있음
※ 덴마크의 경우 가을학기과 봄학기에 고등학교 입학이 가능

[물음 5] 학습목표 달성 방법은 학교마다 다르다고 하였는데, 목표 도달여부는 어떻게 평가를 하며, 학교자체에서 평가를 하는지?

(답 변) 교육부 주관으로 주요과목만 같은 시험을 실시함. 예를 들어, 홈스쿨링 같은 경우에도 똑같은 목표를 가지고 부모들이 교육하고 있음

[물음 6] 교과와 시수 같은 경우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는지?

(답 변) 주요교과 같은 경우 교과목이랑 시수가 정해져 있음

[물음 7] 아르바이트는 몇 세부터 가능함?

(답 변) 만 13세부터는 신문배달이 가능하며, 15세부터는 슈퍼마켓 계산원(Cashier)로 일을 할 수 있으나, 학교를 다니는 경우 근로 시간에 제한이 있음

[물음 8] 학교에서의 수업은 주로 어떤 언어로 수업을 진행 하는지?

(답 변) 학교 모든 수업은 덴마크어로 진행함



[학교운영에 대한 설명 모습]



[실내 암벽등반 클라이밍]



[간호사체험 수업 참관 모습]



[프로그램 참여 학생들과 기념촬영]



[학교입구에서]



[세종시 홍보자료 전달]

5 바흐네호이 에프터스콜레(Baunehøj Efterskole)

방문개요

- 일 시 : 2018. 10. 11.(목), 13:00~16:00(3시간)
- 장 소 : Runegaards Allé 30 3630 Jægerspris
- 면담자 : 교장과 4명의 재학생
- 방문내용: 에프터스콜레에서의 실제 생활 청취 및 시설 견학

1. 교육 철학

- 덴마크 문화에 뿌리를 둔 정통적인 에프터스콜레로 적극적인 민주 시민 양성을 목표로 하며, 학교는 학생과 교사, 학교와 지역사회, 덴마크와 세계 사이의 실시간 상호작용을 구축하여 변화를 지향함
- 학생들은 무언가를 창조하고 그들의 머리로 세상을 바꾸는 꿈을 가지며, 민주주의에 대한 지식, 민주적 가치에 대한 이해를 촉진하고 활동적인 시민능력을 기름
- 학생들이 고등교육으로 진학하기 전에 1년의 시간동안 본인 스스로를 돌아볼수 있는 기회를 갖음

2. 교육 특색

- 학교는 현재 10학년인 100명의 학생(남 50명, 여 50명)이 재학중이며, 코펜하겐에서 1시간 떨어진 바닷가에 위치하고 있어 학생들은 자유롭게 바다수영을 즐기기도 하고 수영으로 1시간 거리인 작은 섬까지 헤엄쳐 가는 대회를 하기도 한다. 말을 타고 관리하는 수업이 한가지 특색있는 수업임
- 에프터스콜레의 역사는 45년이나, 학교 안에는 100년된 건물도 있는데 그 이유가 그 전에는 여성들을 위한 가사교육 학교였다고 함
- 덴마크에는 부유한 사람들이 가서 체조를 배우는 등 창의적인 활동에

중점을 둔 에프터스쿨레가 있는 반면, 이 학교는 학생들끼리 음식을 돌아가면서 만드는 등 예전 모습 그대로이기 때문에 이 학교를 클래식 에프터스쿨레라고 표현하기도 함

3. 정책적 제언

- (학생 자율성 보장 제도 마련) 바흐네호이 에프터스쿨레에 처음 도착하여 우리에게 직접 만든 음식을 대접한 학생들, 말을 타는 학생들, 나무아래에서 독서를 하는 학생들, 우리와 함께 그 곳을 두루 돌아다니면서 신이난 학생들을 보면서 한국의 중·고등학생들과 너무 대조적인 모습에 놀랐다. 입시라는 외부의 억압된 환경 속에서 돌출구라고 찾은 것이 오직 핸드폰이어서 한 시라도 이 물건을 놓지 않는 한국 학생의 모습을 안타까워하며 돌아왔던 기억이 난다. 뿌리 깊게 박혀있는 입시제도 때문에 우리나라의 교육 체계에 에프터스쿨레를 접목시키기에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고는 보지만, 한국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학생들이 지금보다는 더 행복하려면 학생의 자율성 보장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는 등 노력은 필요하다고 봄

질의 및 답변(학생)

[물음 1] 디자인 패션 수업반에는 몇 명의 학생이 수업을 듣는지?

(답 변) 7명의 학생이 수업을 들음

[물음 2] 페인팅 수업 결정은 누가하는지?

(답 변) 선생님이 우선 결정하나, 배움의 단계가 어느정도 지나면 학생들의 학습을 주도함

[물음 3] 매일 수업을 받는지?

(답 변) 8개의 다른 특화과목이 있는데 디자인의 경우 일주일에 5시간 수업함

[물음 4] 학교생활 대해서 만족하는지?

(답 변) 많은 것을 배우고 있음. 모두가 학교 수업을 배우고 싶어하는

동기가 부여되는 학교임

질의 및 답변(교장)

[물음 5]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학교 철학을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

(답 변) 4차 산업 혁명에 대한 개념을 잘 모르겠지만, 현대 사회는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이고, 이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학생들에게는 우선적으로 열린 마음을 가진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자신의 생활에 만족을 하고 우선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 4차 산업 혁명든 무슨 시대든 대비할 수 있다고 생각함. 따라서 인간으로서의 존엄한 가치를 아는 것이 중요하므로 이 학교에서 말하는 시간 등이 학생들에게는 더 중요함

[물음 6] 이 학교에서는 마을의 인적자원들을 활용하고 있는지?

(답 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활동이 있고, 지역축제때 학생들이 참여하거나 학교축제때 지역주민들이 학생 토론 등에 참여함

[물음 7] 마을의 인적자원들을 관리하는 중간조직과 같은 센터들이 있는지?

(답 변) 목공소하는 주민이 특별교사를 할 때도 있으나, 장기적인 형태는 아니며, 교사를 평가하는 등의 중간 센터는 없음

[물음 8] 등록금 총당은?

(답 변) 등록금의 3분의 2는 정부보조, 3분의 1은 학부모가 부담하여 재정상황은 좋은 편이며, 부모들은 5년전부터 에프터스쿨레를 보낼 것을 미리 계획하고 저축한 돈으로 보냄

[물음 9] 학생들이 여러 사람 앞에서 발표를 잘하는데, 토론수업이나 발표수업을 별도로 하는지?

(답 변) 덴마크의 모든 수업은 기본적으로 토론과 발표 수업임. 어렸을때부터 친구들과 이야기할 기회가 많고 컴퓨터에 혼자 앉아있는 시간이 별로 없을 정도로 그룹워크를 많이 했던 습관 덕분임



[학생들이 만든 음식으로 함께 점심 식사]



[학생들이 사육하는 말과 함께]



[나무아래에서 독서하는 학생들과 함께]



[학교의 실제 생활 청취]



[교장선생님 및 학생들과 함께]



[바흐네호이 학교에서 단체사진]

6 외레스타드 초등학교(Ørestad Skole)

방문개요

- 일 시 : 2018. 10. 12. (금), 10:00~12:00(2시간)
- 장 소 : Nordre Toldbod 7 DK - 1259 KØbenhavn K
- 면담자 : 학교장
- 방문내용 : 학교 운영 현황 및 시설 견학

1. 교육 철학

- 외레스타드 스콜레는 최신식 공립학교이다. ‘혁신형 공립학교’라는 거창한 이름이 붙어 있진 않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이 학교를 지을 때 공립학교 미래의 본보기로 삼으려 노력했다고 한다.

2. 교육 특색

- 공립학교지만 디지털 교육과 미학 교육으로 특성화되어 있고, 덴마크에서 유일무이한 8층 건물이며, 운동장이 없는 학교로 체육 활동을 위해서는 앞에 공원을 활용하고, 시민들이 왔다갔다 해도 체육수업은 그대로 진행한다.
- 900명의 학생이 재학중이며, 0학년부터 운영하고 있고 저학년의 경우 두시에 수업이 끝나면 방과후 센터로 간다.
- 해외다국적 기업 자녀들이 많이 다니므로 이 학교에 다니는 학생의 국적이 56개이고 사용하는 언어만 32개이며, 학생들의 자퇴율은 거의 없다.
- 처음부터 해당 건물을 사용한 것은 아니며 4년동안 임대한 교실에서 0학년부터 시작하였다. 이 후 아이들이 자라면서 학년이 점차 채워졌고 2012년에 현재의 건물에서 개교하였다.
- 학교의 교수하는 방식은 처음에 보여주기에서 생각하게 하고 스스

로 다시 만들어보고 발표하는 학습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 저학년반은 현악기 이름, 2~5학년반은 덴마크 화가들 이름, 6~9학년반은 과학자들 이름을 쓰는 것과 같이 처음에 구체적이면서 나중에는 추상적으로 연구할 수 있도록 교수한다.
- 칠판이 없고 대부분 컴퓨터를 활용하는 수업이며 교과서가 실물로 있는 것은 아니다.

3. 정책적 제언

- (학생 체력 강화 방안 마련) 고풍적인 건물이 가득한 코펜하겐시에 서 신도시에 위치한 외레스타드 스콜레로 이동하였을 때 새로운 건물과 시설들로 마치 세종시 학교를 방문하는 듯 하였다. 어찌 보면 새로운 건물과 시설들, 전반적인 학교 운영 체계 등이 한국의 교육체계와 크게 다를바가 없어보였지만, 운동장이 없는 학교인 관계로 학생들이 등교 후 인근 공원 주변을 조깅하는 광경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왔다. 미세먼지가 심한 한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학교의 실내에서라도 학생들의 체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

질의 및 답변

[물음 1] 0학년을 운영하는 이유는?

(답 변) 덴마크에서 정확히 설명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보이며, 초등학교 가기전의 준비과정이라고 생각됨

[물음 2] 0학년은 한반에 몇명인지?

(답 변) 25명임

[물음 3] 한 학급에 두 학년이 공부하는 것이 맞는지?

(답 변) 한 학급에 같은 나이로 운영하고 있으며, 5년전에는 그렇게

운영하기도 하였음

[물음 4] 급식을 하는지?

(답 변) 덴마크는 보통 급식을 하지 않으나, 이 학교는 급식을 하고 유료임

[물음 5] 학생들이 청소하는 영역은?

(답 변) 학생들은 정리하는 수준이고, 소독 수준의 청소는 용역이 하고 있음

[물음 6] 학교에 사용하는 언어만 32개이면 특별한 언어 교육 수업을 하는지?

(답 변) 외국어린이들은 특수학교에서 덴마크어를 배우고 학교에 돌아오면 언어 교육을 위해 재정적 지원을 하는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음. 고학년의 경우 학교에서 마련한 프로그램으로 언어 교육을 받고 있으므로 더 많은 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다고 할 수 있음

[물음 7] 교사가 0학년부터 9학년까지 가르칠 자격을 가지고 있는지?

(답 변) 교사가 0학년부터 2학년까지, 3학년부터 5학년까지, 6학년부터 9학년까지 가르치도록 나누어져는 있으나, 이는 덴마크의 일반적인 사항은 아니며 학교별로 다름

[물음 8] 학년 전체가 같은 건물에서 방과후 수업을 진행하는지?

(답 변) 0학년에서 3학년까지, 4학년에서 7학년까지는 학교안의 다른 장소에서 수업을 진행하고 8학년에서 9학년까지는 집으로 귀가함

[물음 9] 방과후 수업에 대한 학년별 관리 체계는?

(답 변) 0학년에서 3학년까지는 학교안에서 관리하고 4~7학년까지는 다른 주체가 관리하는데 다른 주체의 사무실도 학교안에 있음

[물음 10] 정규교사와 방과후교사의 구분, 특별한 자격증이 있어야 하는지, 신분과 월급의 차이가 있는지?

(답 변) 방과후 학교 수업은 페다고라고 하는 놀이 교사밖에 없으며, 처음에 고용할때부터 0~2학년 교사와 방과후 학교 교사를 별도로 고용하고 페다고와 일반 교사의 임금 차이는 별로 없음. 또한 둘이 공부한 분야 자체도 다름

[물음 11] 교사의 정년퇴직이 있는지?

(답 변) 만 62세 정도면 은퇴하지만 하고싶을때까지 하고, 현재 학교에 만 66세의 교사가 재직중임

[물음 12] 학부모 공개수업은 1년에 몇 번 정도 하는지?

(답 변) 약속만 미리 잡으면 언제든지 참관 가능하고 특별히 진행하는 경우도 있음

[물음 13] 재정이 어디에서 오는지?

(답 변) 학교는 시의 관리하에 있고 재정지원을 받음. 공공학교이기 때문에 학부모 부담률 0원임. 무료임

[물음 14] 1년 예산은 얼마이고, 건물은 렌트한건지, 교사 인건비 수준은?

(답 변) 160억 정도이며, 160억중에 교사 임금과 건물임대료, 난방. 전기료가 다 포함됨. 교사 인건비는 대략 오백삼십만원정도이고 노조에 의해 형성된 금액이므로 학교마다 비슷한 수준임. 예전에는 교사가 박봉인 직업이었는데, 최근들어 임금이 높은 수준임

[물음 15] 예산사용에 대한 감사는?

(답 변) 매달 시에 보고하고 10월부터 12월까지 쓸 비용도 보고함

[물음 16] 한국의 학급운영비처럼 예산집행에 대해서 교사의 권한이있는지?

(답 변) 집행권이 교장한테만 있는 것은 아니고, 학부모 7명, 학생 2명, 학교직원 2명, 스쿨리더 2명으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전체 예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잡고 그 이외에 학교의 저학년.고학년 리더들이 모여서 예산을 어떻게 집행할지를 정함

[물음 17] 교사의 연령대 비율과 남녀 비율 및 이직율은?

(답 변) 교사의 나이는 25세에서 66세까지 다양함. 새로운 학교를 가꾸 보자는 열정때문인지 다른 학교보다 연령대가 낮은 편이고 여자교사가 60프로 정도로 남자 교사보다 더 많음. 이직율이 낮아 2011년에 11명의 교사로 시작하여 지금은 60명에 이르렀음



[학교운영에 대한 안내]



[교장선생님의 교육과정 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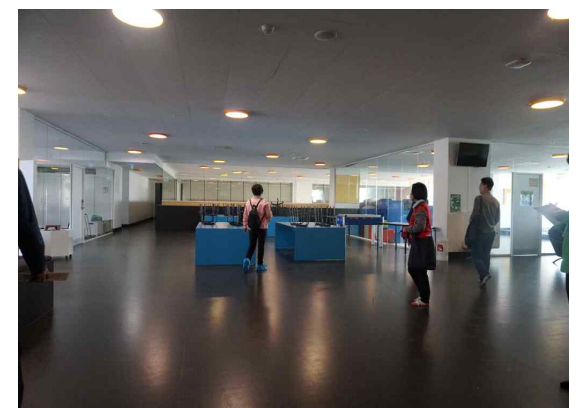
[학교 전경]



[학교현관 입구 모습]



[음악실]



[급식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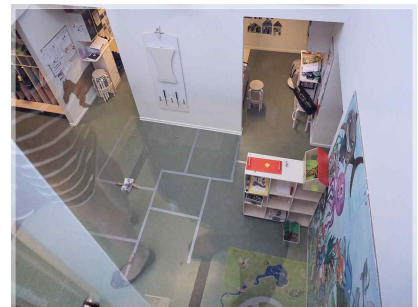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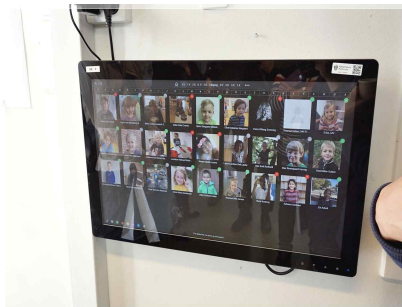
7 Valby유스센터, Valby방과후초등학교

방문개요

- 일 시 : 2018. 10. 12.(금), 13:30~17:00(3시간30분)
- 장 소 : Fengersvej 22-26
- 면담자 : Valby Youth Center 관리자
- 방문내용 : Valby유스센터 및 Valby방과후초등학교 운영 현황

1. 일반현황(방과후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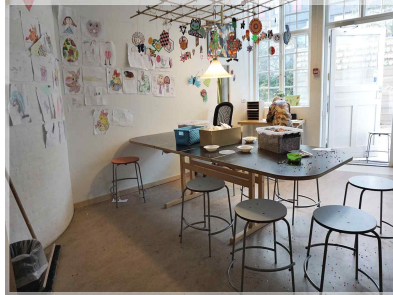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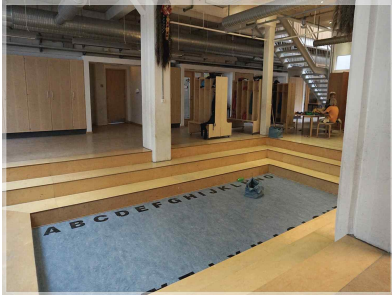
- (Valby Youth Center) 발비 유스 센터는 코펜하겐의 외곽 Valby 지역에 소재하였으며, 3개의 방과후 활동 센터로 구성이 되어있다. 방과후 활동 센터의 설립은 개인이 일정 요건이 성립되면 코펜하겐 시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할 수 있으며, 정부로부터 대부분의 재정을 지원받고 관리 감독을 받는다. 또한, 기관 운영자는 교사(페다고)의 임용권을 가지고 있으며, 임용 교사의 자격은 특별히 제한이 없으나, 대부분 교육을 전공한 사람을 위주로 선발을 한다고 함



[Valby 유스센터 환경]

- (Valby 방과후초등학교) 발비의 공립 기초학교로서 우리나라의 초등학교와 중학교 과정을 운영하는 학교이다. 정규교육과정을 마치면 학교 내 별도의 교실에서 초등학교 1,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방과후 활동이 이루어 진다. 방과후 활동은 페다고라고 불리는 선생님이 전담하고 있으며, 오전에는 정규교육과정의 보조교사로 투입

이 되고 오후에는 방과후 활동을 전담하여 학생들과 함께 생활함



[Valby Skole 환경]

2. 주요내용

- **(덴마크의 학제(學制)와 문화)** 덴마크의 학제는 1학년부터 9학년까지의 공립 기초학교에 대응되는 9년제 사립학교나 자유학교가 있으며, 10학년에는 우리나라의 자유학년제와 유사한 애프터 스콜레 제도가 있다. 10학년이 되면 약 35%정도의 애프터 스콜레에서 다니면서 상급 학교에 진학하기 전에 자신의 진로를 고민하고 탐색하며, 동학년간의 교류를 통해 자아를 형성하는 소중한 시간을 갖게 된다. 10학년 이후에는 우리나라의 인문계 고등학교의 유사한 김나지움(대학 준비과정)에 진학하거나, 직업학교를 선택 진학하게 되어 있다. 현재 덴마크의 청소년들이 직업학교 선택률이 낮아져서 직업학교를 선택하도록 교육 정책에 변화를 도모하고 있다고 한다. 학력에 따른 소득의 불균형 현상이 발생하지 않아 전체 국민의 80%가 중산층을 이루고 있으며, 현금 거래에 대한 제한적 시장 구조로 대부분 신용 거래(Credit) 사회로 경제적으로 매우 투명하며, 사회 안전 시스템(문화, 경제, 의료 등)이 매우 발달하였음
- **(덴마크의 방과후 활동)** 덴마크의 교육의 뿌리는 니콜레이 그룬트비와 그리스텐 쿨의 교육 이념과 실천을 계승하고 있으며, 교육 목표는 ‘위대한 평민’을 길러내는 것이다. 현재 덴마크의 교육 목표는 ‘민주주의 시민 양성’에 두고 있으며, 정규교육과정과 방과후 활동 모두 이러한 교육 목표에 기반하여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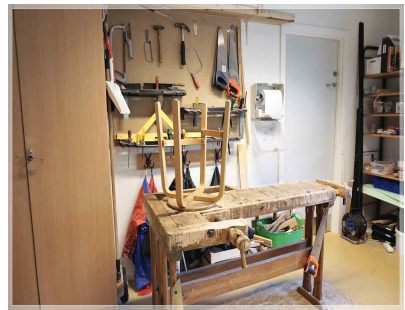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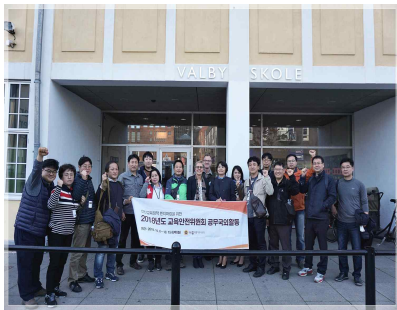
덴마크의 방과후 활동은 학생들이 다니는 공립 기초학교에서 이루어지거나, 지역 사회의 유스 센터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공립 기초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방과후 활동은 대부분 1,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3학년 이상의 학생은 지역의 방과후 활동 센터를 활용하고 있다. 학부모는 방과후 활동 비용을 위한 별도의 비용을 지불하나, 학부모의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로부터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다양한 교육 복지 제도가 있다. 덴마크의 부모 90% 이상이 맞벌이 부부이며, 0~6세의 아동 95%는 데이케어센터(돌봄센터)에서 자녀의 돌봄을 지원하며, 초등학교 1, 2학년 학생은 80%, 10~18세의 학생은 50% 학교 내·외의 공립형 방과후 활동 기관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코펜하겐시에서 방과후 활동을 위해 법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 가이드라인을 따라 방과후 클럽이 운영되고 있다. 또한, 방과후 활동의 핵심 가치는 ‘사회성’, ‘통합과 공동체’로 학생 개개인의 학력과 특기 적성 신장이 아닌 ‘사회적 관계성과 공동체의 유지’에 대해 목표를 두고 활동을 전개하고 있음

3. 정책적 제언

- (사고와 정책의 변화 필요) 우리의 방과후학교는 현재 정규교육과정의 정상적인 운영에 걸림돌이 될 정도로 학교 현장에서 심한 피로도를 호소하고 있다. 촘촘하게 짜여진 시간표와 프로그램으로 방과후학교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피로도가 매우 높아 참여율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학생의 전인적인 발달과 성장을 위해 ‘쉽과 놀이’로 생활의 여가로서 방과후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과도한 학습량을 주입하거나, 공부를 강요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학부모의 사고에 변화가 필요하고, 교육 정책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임
- (지역 사회 방과후 센터) 세종은 지역 사회의 복합커뮤니티센터(이하 ‘복컴’)라는 훌륭한 자원을 가지고 있다. 지자체에서는 이

러한 공공형 자원이자 공간을 활용하여 학생들의 방과후 활동 공간으로 재구조화하여 제공해야 함

- (방과후 활동 인력) 일정 자격을 가진 가진 지역 인력을 활용하여 복검 및 지역 교육기관, 학교에서 방과후 활동을 할 수 있는 인력으로 활용해야 한다. 또한, 학교 내 방과후 활동을 위해서 학교는 공간을 제공하고, 지자체에서는 학교 내 시설을 활용한 돌봄 기능을 중심으로 한 방과후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



[Valby Skole]



[Valby Skole 학급 게시판]



[Valby Skole 개교년도]

IV | 기타 사진모음

□ 주덴마크 대사관



[주덴마크 최재철 대사님과 함께]



[덴마크 현황에 대한 설명 청취1]



[세종시 홍보자료 및 기념품 전달]



[덴마크 현황에 대한 설명 청취2]



[단체기념사진]



[대사관 입구에서]

□ 코펜하겐 문화탐방



[덴마크 국회의사당]



[코펜하겐 시청]



[코펜하겐 왕립도서관]



[니하운 운하]



[국회의사당 옆 자전거 거치대]



[코펜하겐시의 자전거 도로]

V 연수후기

- 행복지수 1위의 나라, 덴마크를 다녀오며 -

교육안전위원회 박 용 희 의원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는 제51회 제1차 정례회가 끝나고 제52회 임시회가 시작되기 전 덴마크 해외연수를 계획하고 있었다. 덴마크 학생들의 행복지수가 높은 이유가 무엇인지 직접 확인하고, 우리 세종시에도 정책적으로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인지 조사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2개월 전부터 사전에 자료를 수집하고, 전문가를 초빙하여 설명도 듣고, 미리 책도 읽어보며 준비를 하였다. 오연호 오마이뉴스 대표 겸 꿈틀리 인생학교 이사장이 쓴 『우리도 사랑할 수 있을까?』를 읽으면서 몇 번이나 눈물이 나고, 아이들에게 미안한 생각이 들었다. 덴마크 학생들의 환한 표정과 한국 학생들의 굳은 표정이 자꾸만 비교되었기 때문이다.

총 16명으로 구성된 방문단은 의회 의원 5명, 교육청 직원 7명, 시청 직원 1명, 의회사무처 직원 3명이었다. 세종시에 적합한 교육정책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의회와 교육청, 시청의 협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세 기관에서 함께 동행했다.

6박9일 동안 덴마크 코펜하겐에 머무르며 덴마크 교육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여러 기관들을 다양하게 방문했다. 덴마크 교육부, 숲유치원, 방과후 활동하는 초등학교, 유스센터, 10학년을 운영하는 학교, 방과후 활동 연합회, 에프터스콜레 등 다양한 교육현장에서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을 통해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었다.

만나는 기관의 대표자들은 교육적 소신이 뚜렷했고, 한국을 방문했던 사람들도 일부 있어서 우리의 교육제도와 문화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었다. 덴마크는 학생들에게 시험을 통한 평가를 절제하는 반면, 우리는 매사 시험으로 평가하고, 성적으로 구분하는 점이 큰 차이점을 보이고

있었다. 시험과 평가에서 해방된 덴마크 아이들의 환하게 웃는 표정과 잠 못 자고 늘 불안과 걱정에서 벗어날 수 없는 우리 아이들의 굳은 표정이 또 한 번 비교되었다.

숲유치원에서는 아이들을 자연 속에서 맘껏 놀 수 있게 배려하고 있었다. 조기 학습적인 면은 전혀 없이 사회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또래와 어울리고 협동하며, 연령에 맞게 스스로 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데 주력하고 있었다.

약간은 서늘하고 구름 낀 날씨였지만, 아이들은 흙과 나뭇가지, 간단한 놀이기구, 책 등을 보며 자유롭게 실내와 실외를 오가며 놀기에 바빴다. 아이들은 비가 오지 않는데도 안전을 위해서인지 모두 장화를 신고 있었고, 누빔이 되어 보온이 잘 될 수 있는 옷을 입고 삼삼오오 모여서 놀기도 했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모두 신나게 놀고 있었다.

아이들을 돌보는 선생님들도 여러 분 계셨는데, 어울리지 못하는 아이가 있으면 잘 놀 수 있도록 배려하면서 아이들 곁을 지키고 계실 뿐, 주입해서 뭔가를 가르치고 있는 모습은 전혀 볼 수 없었다. 아이들은 각자 재밌게 놀고, 선생님은 아이들 놀이에 방해되지 않게 필요한 것이 없는지, 문제가 있는 아이는 없는지 살펴보는 일이 주된 업무였다.

덴마크는 많은 인종들이 모여 사는 국가로 우리가 방문했던 한 초등학교는 해외 다국적 기업이 인근하고 있어 56개국의 다국적 학생으로 구성되어 있고, 32개국의 언어가 사용되고 있다고 소개하셨다. 그 중에는 한국인 학생도 있단다. 다양한 인종과 언어를 쓰고 있지만, 덴마크어를 기본으로 하고 있었고, 영어에 대해서도 많은 중점을 두고 있었다.

덴마크는 인구가 600만 명이 채 못 되기 때문에 한 명의 학생이라도 소홀이 대하지 않고, 국가의 인재로 육성하기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었다. 우리나라의 대학진학률은 70% 가까이 되는 반면 덴마크는 40%를 넘지 않는다고 한다.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이고, 고등학교 때부터는 진로교육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더 많은 학생들이 실전 기술을

배워 곧바로 취직할 수 있는 직업학교를 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었다.

덴마크에서는 교사에 대한 신뢰가 매우 강하다고 했다. 교사는 교과서가 따로 없기 때문에 스스로 적합한 교구와 수업내용을 가지고 가르친다고 한다. 그리고 1학년부터 9학년까지 교사 1인이 계속 담임을 하는 경우도 있고, 6년과 3년으로 나누어 담임을 하거나, 3년씩 세 명의 담임으로 교체되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우리나라와는 큰 차이가 있었다.

또 다른 특이점으로는 0학년 제도가 있다는 점이다.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 아이들을 0학년이라고 부르고 있었다. 그리고 초등과 중등과정을 마친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진학하기 전 1년 동안 휴식과 진로 탐색, 학업에 대한 보충을 할 수 있도록 10학년 제도를 두고 있었다.

10학년은 학교 내에서 운영하는 곳도 있었고, 별도로 ‘애프터스콜레’라는 명칭으로 100~150명 정도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1년 동안 기숙하면서 고등학교를 준비하는 과정도 있었다. 우리나라의 학생들에게도 이런 제도가 있다면 많은 아이들이 휴식도 하면서 자신의 진로를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덴마크는 자전거의 나라이기도 했다. 40%가 넘는 시민들이 출퇴근, 통학 수단으로 자전거를 이용하고 있다. 모든 도로에는 인도와 자전거도로, 차도가 정확히 구분되어 있었고, 신호등 또한 보행자 신호, 자전거 신호, 자동차 신호가 각각 함께 있었다. 그 어느 것도 차별되지 않게 보행인과 자전거를 탄 사람, 자동차를 탄 사람들이 도로에서 통행권을 보장받고 있었다.

덴마크의 수도 코펜하겐에 머무르면서 아침 일찍 호수를 걸으며 운동 겸 산책을 할 때, 이른 출근을 하는 시민들을 만나볼 수 있었다.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남녀를 가리지 않고, 건강한 모습으로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는 모습이 매우 이색적이면서도 보기에 좋았다. 차도와 인도 사이에서 자전거를 수 킬로미터씩 타고 다녀도 입에 마스크를 한 사람들을 찾아볼 수가 없었다. 기본적으로 미세먼지가 없는 청정한 지역이지만, 자동

차로 인한 배기가스가 없어 공기가 더욱 상쾌했을 것이다.

건축과 조각, 디자인이 발달한 나라여서 그런지 건축물 외관에는 조각을 곁들여서 건축물 곳곳에 섬세한 아름다움이 있었다. 의회도 조각과 미술품과 사진 전시로 아름다운 전시장을 방문한 것 같은 착각을 일으켰다. 시의회 본회의장의 천정과 벽면은 아름다운 조각으로 꾸며져 있어서 회의를 하는 의원들은 건축물의 품격에 맞게 의원활동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다.

그리고 한 가지 의문점이 풀린 것은, 덴마크 의원들은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 하거나, 소형차를 타고 출퇴근하는 이유를 알 수 있었다. 덴마크에서는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하는 것이 대부분 보편화 되어 있고, 자동차를 보유하고 운행을 하게 되면 세금이 어마어마해서 일반 시민들이나 의원이 자동차를 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고 했다.

우리 세종에서 의원들이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하는 것에 대해 생각을 해볼 수 있었는데, 쉬운 일은 아니었다. 일단 자전거도로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미세먼지와 매연이 많아서 호흡기 질환에 영향을 주고, 사계절 중 겨울철에는 춥고 미끄러워 불가능하기까지 하다. 덴마크의 자전거 형태는 매우 다양했는데, 우리나라 자전거보다 일단 바퀴가 컸다. 그리고 성능도 훨씬 좋아 먼 거리를 빠르게 갈 수 있어 보였다. 최근엔 가격이 일반 자전거에 비해 훨씬 비싼 전기자전거도 있고, 언제, 어디서든지 자전거를 빌려서 탈 수 있는 제도도 잘 갖추어져 있었다.

우리 시에서도 공공자전거 ‘어울링’을 만들어 시민들이 빌려 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놓고 있다. 그러나 크게 활성화 되지 않아 앞으로 보완이 더 필요해 보인다. 세종에서도 시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탈 수 있는 날이 오길 기대해 본다.

가구에 대해서도 유명한 덴마크는 실용성과 미적인 감각을 둘 다 살려서 인간에게 친화적인 가구로 활용되고 있었다. 다양한 디자인과 기능을 갖춘 의자에 관심을 갖고 사진으로도 찍어 왔다. 우리나라의 권

위적이고, 획일화된 학교와 공공기관의 의자들과는 비교되었다. 아이들이 사용하는 학교 의자도 다양한 디자인과 편리함을 갖추고 있었는데, 그런 측면은 우리나라에서도 적용했으면 한다. 한 예를 들면, 아이의 키에 따라 발을 올려놓을 수 있는 높이를 달리하여 어느 누구라도 편리하게 의자에 앉을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인간이 가구에 맞춰 사는 것이 아닌, 가구가 인간에게 최적화 되어서 일과 휴식, 위안을 받을 수 있는 가구로 비춰졌다.

일상에서 많이 활용되는 조명이나 컵에 대해서도 유심히 보았는데, 종류도 다양했다. 전등은 실내의 어둠을 거두어내는 것뿐만 아니라 예쁘게 디자인 되어 개인의 취향에 맞게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을 듯했다. 생활가구나 디자인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덴마크에서 가서 공부해도 좋은 유학처가 될 듯 싶었다.

덴마크의 가로등도 우리나라와는 달라서 매우 흥미로웠다. 우리나라는 가로등이 도로 양쪽에 줄지어 있는데, 덴마크의 경우에는 도로의 한가운데에 높게 위치되어 있어서 그 것만으로도 양쪽 도로의 가로등 역할을 훌륭히 해내고 있었다. 인도와 차도 사이에 있지 않아 그 경계 부분이 복잡하지 않아서 좋았다. 그리고 전력 절약이 많이 될 것 같았다.

이번 해외연수를 통해 본 덴마크인들의 일반적인 삶이 검소하고 소박해 보였다. 자신의 위치에서 성실하게 일하고, 개인의 여건에 맞는 생활수준을 유지하고, 매우 가족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다. 직장이 대부분 4시 반 정도부터 퇴근하기 때문에 저녁식사는 늘 가족과 함께 한다고 한다. 그리고 외식비가 몹시 비싸기 때문에 일반 서민들은 특별한 날이 아니고서는 외식이 거의 없다고 했다.

날씨 변화가 잦고 늦가을에서 초겨울 날씨라는 정보를 듣고 갔으나, 우산과 두꺼운 외투는 필요 없었던 기후였다. 우리나라와 계절은 비슷하여 가을 중턱을 막 넘어서서 단풍이 여기저기 예뻐다. 하루에도 비가 내렸다 개이기를 자주 하는 날씨인데, 연수중에는 맑고 따뜻한 날이

연속되었다. 가이드에 의하면 이상기후 현상이라고 했다. 비가 잦은데 비도 안 오고 맑은 햇빛이 비취서 시민들은 야외로 나들이를 가고, 휴가를 떠났다고 했다.

많은 걱정을 하며 떠난 해외 첫 연수에서 덴마크의 교육제도와 사회 현상을 보고, 우리 시에 잘 적용할 수 있는 점을 찾아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보답하고자 한다.